

목포권

건설 관급자재 55억원중 관내 수급 2억원 불과
무안 스포츠파크 '해도 너무해'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업체들 반발

무안군이 종합 스포츠파크를 건설하면서 관급자재 대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와 지역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민들도 “지역기업을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군이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7천여만원 어치를 들여와 지역업체들로부터 원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남지역 관련업체들도 외면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안을 제외한 전남도내 10개 업체는 스포츠파크 소요자재 가운데 20%인 11억3천만원 어치만 공급했다. 이 중 레미콘과 오수처리시설 두 곳을 제외하면 8개 업체 납품금액이 1억6000여만원 정도여서 다른 지역과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다.

관행이 작용한 탓”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무안군과 의회가 관내 자재구매나 하도급 공사를 관련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건설 대표는 “스포츠파크와 같은 대형 공사가 발주되더라도 지역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지역과 군민을 무시한 행정은 더 이상 안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 누리사업 평가 '1위'
도서·해양콘텐츠 인력 부문

국립 목포대학교(총장 임병선) 다도해문화콘텐츠사업단이 2009년도 누리(NURI)사업 종합평가 결과 도서·해양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5년간 누리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종년도 사업종료 후 종합적인 평가를 한 결과 목포대가 중심이 된 도서·해양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사업과 목포대가 협력한 전자정보 가전인력양성사업, 문화관광 인력양성사업, 농어촌 건강복지서비스 인력양성사업 등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목포 세라믹산업 지원센터 개소

전국 유일의 비산화물 구조세라믹 대형 부품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지원할 '세라믹산업 종합 지원센터'(삼진산단 입구 위치)가 13일 개소식을 갖는다.
비산화물 구조세라믹산업은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성장 유망 산업이다. 이번에 문을 열게 되는 세라믹산업 종합 지원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00여억원이 투자돼 부지 1만4천876㎡, 건물 6천175㎡ 규모로 지어졌다.

“흑산도에 원어민 선생님 오셨다”

신안 초·중 10개교 영어학습 '활기'

신안 흑산권역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되며 지역 초·중학생들의 영어학습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신안 흑산중학교(학교장 김권술)는 지난 9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의 협조를 얻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카라스 지스틴 피터(kraus Justin Peter·27)씨를 초빙했다.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인 지스틴씨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해양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흑산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주제로 해양 경영학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자원했다.
지스틴씨는 흑산중을 비롯해 관내 흑산초등학교에도 매주 화요일 오후(2시간)와 수요일 오전(4시간)에 영어수업을 진행, 사교육기관이 전무한 오지 초등학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를 틔워주고 있다.



개 분교와 신안 흑산중 가거도분교(가거도·8명), 가거도초등학교(가거도·17명)를 매주 목요일 김형수 영어교사와 함께 순회하면서 3시간씩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신안 흑산중은 목포에서 98Km 떨어진 낙도여서 영어 원어민이 배치되지 않았다. 전교생 31명인 신안 흑산중학교 학생들은 매주 4시간씩 원어민 영어수업으로 날마다 영어회화 능력이 향상되고 지스틴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완도에 소형어선 전용 부두 건설

목포항만청, 2013년까지

완도에 소형어선 전용부두가 건설된다.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은 14일

완도항에서 소형어선 전용부두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항만청은 올해 진입도로 591m 건설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5년

간 212억원을 투입해 외곽시설 365m, 점안시설 290m, 진수 호안 212m를 건설할 계획이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완도항에서 서남해 지역의 화물 70만t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 갯벌 왕새우가 소득 효과네

높은 가격에 출하...69어가 올 120억 소득 기대



신안 섬지역의 게르마늄 갯벌에서 키워낸 싱싱한 청정 왕새우가 높은 가격에 출하해 어민소득에 일조하고 있다.
12월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 새우양식장은 69어가에서 71개소, 폐업전 부지 425ha에 달한다. 지난 5월 초부터 중순까지 1억2천마리의 어린 새우를 입식한 뒤 9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다.
왕새우 가격은 1kg당 1만6천~1만9천원을 호가한다. 지난해보다 2천~3천원 올랐다. 이에 따라 신안군에서는 1천여어의 왕새우를 생산, 12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전 부지에 독을 쌓는 축제식 양식을 통해 청정 새우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비해 생육조건이 좋고 세균성 바이러스 질병이 적어 풍작을 보이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차창석 신안군 해양수산과 담당은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 등을 막기 위해 조기출하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택배 등을 통한 소량 직거래 출하를 돕기 위해 어업

목포 영유아 양육비 지원 '성과'

시, 각종 지원금 혜택...출생아 年 6.3% 증가

목포시가 전남도내 시 단위로는 처음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각종 출산장려책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행 초기인 지난 2006년부터 출생아 수가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이 자녀양육을 위한 가계부담을 줄여줘 인구증가정책에 부응하면서 출산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2008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영유아 양육비를 물때는 3만원, 셋째 이상은 10만원을 만 3세까지 매월 지급해 같은 해 7월부터 최근까지 2만759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또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 다섯째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

'홍주'랑 '명주'를 찾습니다

진도군, 선착순 77명 문화체험 운영

“홍주”와 “명주”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진도군으로 연락하세요.”
진도군은 진도 홍주 마케팅의

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이 77명을 선착순 모집해 경관이 수려한 다도해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군은 참가자를 '진도 홍주 명에 홍보대사'로 임명해 홍주를 적극적으로 알리 나갈 계획이다. 문의 진도 홍주 신활력사업소 (061) 540-6369.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2)383-5221
▶빌딩(임대용, 투자용)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기타용도
▶호설, 모델에 투자 하실분 상담원형 투자수익률 10% 이상 보상

금호부동산컨설턴트
급매부동산전문
•아파트(급매 매물)
광주 문흥동 아파트 32평(총15/12층, 가격 1억1천만) 매 8천5백만원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매 중개 전문)
▶공시지가+건물과표15억/매매가11억
▶대지300평/건물450평/보통1억5천20m도로접

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
H.K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